

# 대회 성공 개최에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마지막 날 품격 파마텍 주최인 대표와 뉴욕한인회장이자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공동 회장인 이경철 웨일 엔터프라이즈 LOC 대표 사이에 5,0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수출계약으로 대미를 장식하며 끝나게 되었다.

이번 대회 성과로는 5,8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비즈니스미팅 2만여 회, 비즈니스 상담 금액 6억3,000만 달러에 달하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게 되어 그간 잦아들 행사 파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일거에 만회하는 큰 성과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지난해 대회 유치 후부터 대회 기간까지 숨 쉴 틈 없이 대회를 준비해 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와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이자 미래첨단 사업국장과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사무국 한승룡 국장 이하 전 직원, 재외 동포청 이상덕 청장과 전 직원, 전주시 우범기 시장과 전 직원, 전북대 양오봉 총장과 전 직원과 학생 모두가 하나되는 원팀이 되어 열심히 노력한 공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외에도 도민 모두가 하나되어 이번 대회만큼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을 주고 적극 참여한 결과가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성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이번 대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대회 종료시 까지 여러 차례 대회를 들며 취재를 하면서 눈에 띄게 드러난 점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 ▲자원봉사 활동가의 노고

개막식 기자간담회장이 열린던 전북대 진수당 1층에서는 오가는 대회 참여자들에게 각종 과일과 차와 커피와 다양한 국산 차를 준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볼 수 있었다. 시간이 바쁜 관계로 차 한잔 얻어먹지 못했지만 대회 기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차와 과일을 나누어 주어 전주의 푸짐한 인심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헌신적인 자세로 오신 손님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전주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감동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품만인 아닌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여 봉사하신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대회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차 안내 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한 경찰관을 비롯한 수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대회 성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일본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흥래완 사무국차장의 헌신

개막식을 마치고 저녁 만찬장으로 가는데 휠체어에 의지하며 이동하고 있는 흥래완 사무국차장과 아들을 보게 되었다.

연세도 많아 보이고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아들이 미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대회에 참가하고 있어 더 눈길을 끌었다.

만찬장으로 이동 중이고 필자는 필자대로 바쁜 관계로 명함을 주고 받으며 인터뷰를 약속했지만 다음 날 연락을 하려고 보니 휴대폰 번호가 없어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다. 백방으로 연락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다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아 연락을 취할 수 없어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구체적인 대회 참여 사연은 알 수 없었지만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대회에 참여해서 아들에게 조국의 발전상과 자랑스런 대한민국 한국비즈니스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막연히 추측해 볼 뿐이다.

인터뷰는 못했지만 사진은 찍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서 사진이어나고 고향에 몸이 아파서 휠체어에 의지하며 생활하시면서도 조국을 찾아 자식들에게 한국 비즈니스맨의 자랑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 ▲학교법인 남성학원 이사장인 손태완 회장의 헌신

(우)일성안타문, (중)S 테크, (좌)S 오토 세 개



①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린 전북대학교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②손태완 학교법인 남성학원 이사장(사진 왼쪽)  
 ③김방수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사진 왼쪽)과 장창수씨.  
 ④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⑤박춘열 전북전통문화예술품협회 회장  
 ⑥이미정 가천대 길병원 국제의료센터 2팀장(사진 오른쪽)

한인비즈 자원봉사자들, 행사장에서 손님 맞이 앞장  
 흥래완 일본 재일한국상의 사무국차장 부자도 헌신  
 손태완 남성학원 이사장, 전북 발전에 도움되고자 참석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도 직접 나서 손님 응대  
 가천대 길병원 국제의료센터, 재외동포 환자 진료 안내  
 대회 기간 맞춰 전통문화예술품협회 고미술품 전시회도

팔을 걷고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은 인상이었다.

사업이 규모가 적을 때나 큰 때나 일하는 방식과 방법은 같으며, 손님을 대하는 것을 몸소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보고 있다.

김홍국 회장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품질이 좋은 라면을 개발하기 위해 직접 개발자의 자세로 임해 고품질의 라면도 직접 개발하기 위해 회장이 직접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 ▲가천대 길병원(설립자 이길여) 국제의료센터의 외국인과 해외교포 환자유치를 위한 참여

가천대 길병원 국제의료센터 이미지 2팀장과 팀원 1명이 대회 개최 기간 동안 부스에 참여하여 재외동포 환자들의 건강검진과 각종 진료를 안내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무엇보다 친절하고 환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외국인 환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서 외국에 간 교포들도 몸이 아플 경우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소개하며 재외동포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드리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행사에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인 이길여 박사가 고향 사람 나라 사람의 마음으로 전북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일부러 참여해 행사를 빛내 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졌다.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인 이길여 박사는 전북 군산 대야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 후 인천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해 밤낮을 모르고 환자를 진료하여 국내 5위권 규모의 병원으로 성장시킨 신화의 주인공이다.

인천과 경기도 섬 지역을 망라하는 오늘의 가천대 길병원은 암 전문병원에서부터 각종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미국의 어느 유명 병원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최첨단 병원으로 성장시켰다.

이길여 박사는 고향에도 지금도 청년들 못지 않게 매사에 진취적이고 병원 경영과 가천대 학교 경영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경탄의 눈길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 ▲(사)전통문화예술품협회 회원 고미술품 전시회 열려

(사)전북전통문화예술품협회(회장 박춘열)는 고미술품 전시회를 대회 기간에 맞추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S실에서 열려 전북을 찾는 재외동포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문화예술품과 각종 전통 물품을 전시해 오랜만에 전주를 찾는 많은 재외동포들에게 옛 향취를 느끼도록 했다.

다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열며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 전시회였다.

이처럼 전북 출신 성공 기업인들과 전북이 잘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손길들이 나라 사랑과 전북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해 주었기에 무사히 대회가 마무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북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팔팔 뭉쳐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다 할 지라도 오투기 같은 마음과 자력으로 노력하게 된다면 앞으로 무한성장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만희 기자